

삼성전기, 일본에 MLCC 특허 승소

미국 ITC, Murata가 제기한 소송 무효판결 ... 나머지 2건도 비침해로

삼성전기는 일본 Murata가 제기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전기는 Murata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고 4월24일 발표했다.

Murata는 2009년 ITC에 삼성전기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부문 특허를 침해했다며 모두 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0년에는 MLCC의 구조에 관한 소송 1건을 취하한 바 있다.

삼성전기는 “해당 3건 중 나머지 2건은 이미 2월 비침해로 결론났기 때문에 3건 모두에서 삼성전기의 특허 침해사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셈”이라며 ITC의 최종 판결을 환영하면서 Murata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라타는 ITC의 최종 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25>